

가정폭력피해자들의 결혼과 결혼지속과정에 관한 생애과정적 사례연구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이용경험이 있는 여성피해자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Decision of Marriage and Continuing Marriage of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Reflecting upon Their Life Courses

- based on female victims sheltered in the institution -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정민자*
강사 엄선필

Dept. of Child &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 : Jung, Min-Ja
Lecturer : Um, Sun-Phil

<Abstract>

It is shown about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this study that how for them to have made a marriage, what to have been forced them to endure it hitherto and their way to betterment after attending at a institution. In addition, this study approached the side of their family history with a viewpoint of life courses.

Some digested stuffs of the results are followed below with the main problems proposed in this research.

1. Most of the female victims for this research had been brought up under normal home conditions besides one of ten victims having lived in their own violent home. On the other hand, many of husbands had been in a poor circumstance, as five of ten ones had grown up with the domestic violence. And it is appeared that anyone of them are not well off now.

2. They were hesitant to break through the wall of violence because of the responsibility of a remarriage(3cases), for their children(4cases), and for fear of divorce(3cases). It was appeared that most of the first violence of them were occurred in six months earlier before marriage and most victims didn't cope with it adequately.

3. The total of 10 women victims, of the former 6 cases, 3 women victims returned to their home with their husbands' authentication of violence-free. Their decision was based on the same reason as they had endured for. And the others were to be out since a termination of the sheltering term, in the course of the divorce suit.

▲ 주요어(Key words) :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생애과정(life courses),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sheltering institution for the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 주저자 : 정민자(E-mail : mjagnes@korea.com)

I. 서 론

그 동안 가족내의 은밀한 사적문제로만 인식되어 오던 가정폭력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정폭력특례법¹⁾”의 시행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많은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경찰 개입 가능성 등의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그 동안 남편 혹은 부인, 부모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해오던 많은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과 관련된 기사가 뉴스나 신문의 일면을 장식하게 되면서 일반시민들에게 “가정폭력”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특히,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남편의 아내학대에 대한 학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아내학대 문제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 새로이 등장한 현상은 아니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몇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는 그것을 가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범죄로 보는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피해자 스스로에 의해서, 주위 편견에 의해서, 혹은 가해 남성의 위장으로 인해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그러한 범죄행위를 표면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많은 단체들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이다(손정영, 1998).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전체 가정의 31.4%가 1년에 적어도 한번은 부부간의 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10쌍의 부부 중에서 3쌍이 넘는 부부가 부부폭력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재엽, 1998). 1998년 울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실시한 울산지역의 가정폭력실태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의 24%가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낮긴 하지만 울산지역 역시 가정폭력에 있어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신체적 폭력은 연구 대상과 측정도구에 따라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28.4-61.3%의 여성들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 1985; 전형미, 198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손정영, 1998).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내를 살해하는 경우도 있고, 학대를 견디다 못한 아내들이 남편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내들의 결혼형태는 부모가 반대한 결혼과 혼전임신, 혼전강간, 혼전동거 등 비정상적인 결혼형태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광일, 1988; 허남순, 1993). 이는 이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결혼 후의 폭력을 예상하는 한 부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남편의 아내학대는 결혼후부터 발생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결혼전에도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Lane과 Gwartney-Gibbs(1985)의 연구에 의하면, 데이팅 관계에 있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갈등이나 불일치를 경험하며, 이들 중에서 약 1/3은 폭력을 경험한다고 한다. 또한 1998년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남편의 아내학대가 시작된 시기가 결혼후 3개월 이내가 42.73%로 가장 많았고, 결혼 1년 후부터가 16%, 결혼4개월에서 1년 이내는 14.18%, 결혼전부터도 13.64%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들의 성장과정을 살펴본 연구에 의하면 이들 가해자들이 폭력 가정에서 자란 확률은 50-70%이상이라고 한다(허남순,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공미혜, 1993). 이는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남편의 성장과정을 살펴보는 것 또한 가정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계속되는 남편의 학대속에서도 많은 여성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1998년 서울 여성의 전화 상담통계에 의하면 ‘그냥 맞고만 있는다’가 23.83%, ‘도망간다’가 22.9%, ‘무조건 빈다’가 8.14%로 나타나 55%가 넘는 여성들이 남편의 학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항을 하거나 경찰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약35%였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은 가정폭력의 실태나 이들을 위한 상담활동의 효과검증, 아내학대 원인 분석, 아내학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 발생과 지속과정 등의 연구들이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아내학대 피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성장과정을 무시한 채 결혼이후 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때를 시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의 접근방법이 질적 접근방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연구대상자의 삶에 대해 단편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아내학대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서부터 폭력상황에서의 탈피과정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남편의 학대를 벗어나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결혼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결혼생활 및 입소후의 방향 등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생애과정적(life course)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가족사의 영향력과 세대의 전이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애과정적 관점을 취하였다.

생애과정적 관점은 가족이 시간에 따라 변화된다고 보는 입장을 개인의 생애와 가족과 같은 미시사회적 수준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사회구조와 역사적 위치에서 관계의 사회적 맥락과 가족 내 친밀한 관계의 역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생애과정적 관점은 가족구성원의 삶과 가족단위로서의 가족이 시간과 역사의 맥락에서 변화하는 것을 맥락적, 과정적, 역동적으로 접근하는 접근방법의 하나이다.

1) 가정폭력특례법은 가해자의 처벌을 중심으로 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을 위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로 나뉘어 있다.

“생애과정(life course)”과 “생애(life span)”란 용어는 최근 가족학 연구와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분명하게 정의된 것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애과정”이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개인이 갖는 자신의 환경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과정적 관점을 가족변화에 적용하게 되면, 가족에 대한 견해도 달라지게 된다. 즉, 가족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계속 변화하는 사회적 맥락 내에서 역사를 공유하는 개인의 집합으로, 거시사회적 맥락 내에 있는 미시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 이처럼 생애과정적 관점을 가족연구에 적용하게 되면, 개인의 생애발달과 가족의 발달, 그리고 사회적-역사적 발달을 통합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따라서 생애과정 관점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족의 변화를 심리사회적-역사적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다학제적인 이론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생애과정적 관점은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특히, 출산, 사망, 결혼, 이주, 그리고 사회적 이동 등과 같은 인구와 관련된 연구, 가족내 과정과 전이 및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과정과 전이, 출생동시집단내 혹은 집단간 다양성에 관한 연구 등에 많이 이용된다. 또한 생애과정적 관점은 심층면접과 주관적인 생활사 분석 등의 질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가족학 연구에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적 접근법”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현상을 기록한 자료나 기록물, 또는 문화기술지 자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적 사건과 가족사건의 의미에서 관심을 둔 사회적으로 구성된 정의들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는데 전형적인 방법이 과거를 회상해서 응답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생애과정적 관점을 가정폭력 연구에 적용하게 되면, 폭력이라는 문제행동이 부모세대에서 세대내 문제가 되어 가족관계에 문제를 가져오게 되며, 이러한 문제행동은 자녀세대로 전수되어 세대간 문제가 되며, 이러한 문제행동은 자녀세대에도 다른 가족관계 문제를 낳게 되는 즉, 생애과정을 잘 보여줄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생애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그 속에서 나타나는 그들의 삶과 그들 가족의 삶을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 중에서 결혼기간이 2년 이상이고 남편의 폭력이 상습적이고 폭력정도가 심한편에 속하는 10명이다. 연구기간은 1999년 2월부터 인터뷰와 면접을 시작하여 6개월간 실행하였다. 또한 추후조사를 통하여 입소후의 생활을 정

리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방법은 연구자들이 작성한 상담일지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도중 미진한 부분은 다시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보완해 나갔다. 그리고 퇴소 후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입소중인 대상자를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전화나 면접을 통해 최근의 근황을 알아보았으며, 이중 사례2(연락두절)를 제외한 모든 연구대상자와는 퇴소 후에도 자주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상담일지는 개인적인 사항과 관련된 내담자 조사서와 반구조화된 설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담자 조사서에는 성명, 성별, 출생지, 주소, 나이, 종교, 학력, 직업, 재산, 생활방법, 월수입, 혼인방법, 혼인연령, 혼인기간, 혼인신고유무, 혼인형태, 자녀수, 가족사항 등을 적게 되어있다. 모든 문항은 본 상담원이 묻고 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반구조화된 설문지는 크게 입소를 하게된 직접적인 계기와 본인과 배우자의 성장배경 및 결혼생활, 폭력과 관련된 질문, 앞으로의 방향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상담의 횟수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평균 주1-2회 정도 실시하였다.

2.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거쳐갔거나 입소중인 입소자 중에서 선택한 10사례를 분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그들의 생애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장과정은 어떠하며, 가족관계, 결혼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자들이 응답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들의 성장과정과 과거와 현재의 가족관계 중에서 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거나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사건들을 중심으로 가계도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결혼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이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선정하여 유형화하여 분류하였다.

둘째,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결혼생활지속과정은 어떠하며 지속이유는 무엇인가?

결혼생활지속과정은 결혼부터 시설에 입소하기 전까지의 생애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폭력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의 연령이 대부분 30-40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생애과정에 있어 큰 전환점은 대부분 결혼과 이혼이다. 따라서 이들의 생애과정 중에서도 특히, 폭력을 중심으로 체계이론을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여성들이 지금까지 폭력관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결혼을 지속해온 이유는 그들의 응답내용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사례	이름 (가명)	연 령		학 력		직 업		형 제 순 위		결혼 형태	결혼 기간 *****	동거자녀성별 및 연령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1	안지현	35	39	전문대졸	고졸	주부	은행대리	2남2녀중4	3남5녀중8	재혼	3/4 (년/개월)	아들(16) 아들(14) 아들(7)*
2	강연희	27	32	중졸	중졸	주부	무	2남3녀중5	2남2녀중3	초혼	6/2	아들(5) 딸(3)
3	박정숙	37	42	고졸	중퇴	급식소 종업원	무	1남5녀중4	4남2녀중6	초혼	11/11	딸(12) 아들(10)
4	김미정	38	40	고졸	중졸	주부	무	2남5녀중2	2남2녀중3	초혼	16/3	아들(18) 딸(17) 아들(15) 아들(4개월)**
5	진수진	40	45	고졸	고졸	식당 종업원	용접공	4남3녀중3	3남1녀중1	재혼	2	무***
6	김현순	41	48	국졸	고졸	식당 종업원	학교서무보조원	3남2녀중2	2남2녀중1	초혼	16/8	딸(18) 딸(16) 딸(14)
7	한희진	38	43	고졸	고졸	주부	무	3남4녀중4	3남2녀중1	재혼	4/2	아들(12) 딸(3)
8	손진영	40	46	중졸	고졸	식당 종업원	개인택시	3남4녀중6	1남5녀중1	초혼	19/4	딸(19) 아들(16)
9	박정자	57	59	무	대학중퇴	공공 근로	공공근로	1남3녀중4	3남1녀중4	재혼	10	무****
10	오미자	39	41	중졸	중졸	주부	운전자	1남2녀중2	3남2녀중2	초혼	13/9	아들(14) 아들(10)

*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임. ** 남편과 이혼 후 낳은 아들임. *** 전남편과의 사이에 쌍둥이가 있었으나 현재 전남편이 키우고 있음.
 **** 박정자씨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음(원인은 모름). 현재남편에게 딸(30세)과 아들(27세)이 있으나 딸은 출가했고 아들은 누나와 함께 살고 있음.
 ***** 결혼기간은 [평안의 집] 입소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표 2> 연구대상자 원가족 특성

사례	경제적상황		폭력경험자*		외도경험자		도박경험자		알콜경험자**		정신질환자 ^①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본인	남편
1	보통	어려움 ^②	.	.	전남편	제부	.	.	.	본인	.	큰형 ^③ 작은형수 ^④ 제부 ^⑤
2	어려움	어려움	.	남동생	.	본인	.	남동생	.	남동생	.	.
3	어려움	보통	.	父, 3형제	.	.	.	본인
4	보통	보통	.	父 형, 제부	.	母	.	.	.	형	.	.
5	보통	어려움	.	아들	.	전남편	.	.	.	본인	.	.
6	보통	어려움	.	.	본인	본인	남동생
7	보통	어려움	.	父, 남동생	본인	父
8	보통	어려움	.	父	.	母, 본인	.	父, 본인	.	父, 제부	.	.
9	어려움	어려움	.	아들	.	.	父	父	.	父	오빠 ^⑥	형
10	어려움	어려움	父	父	父	본인	.	.	父	父, 본인	.	.

* 모든 남편이 폭력남편이므로 본인은 제외함 ** 알콜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한함.
 ① 연구대상 스스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경우
 ②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잘 살았으나 아버지 사망 후 어려워 짐
 ③ 결혼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으나 결혼 후 부인이 간질이 있었다는 것이 추후 밝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 문제가 생김. 정신요양시설에서 10여년 지냄.
 ④ 밤에 소복을 입고 칼을 들고 산에 올라가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함.
 ⑤ 특별한 이유 없이 5세 된 딸아이를 데리고 나가서 유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함.
 ⑥ 어렸을 때 뇌막염을 앓았는데 그 이후 이상해졌다 함.

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선정하여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가정폭력 여성피해자들이 폭력관계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기제는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이 시설에 입소한 후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는 입소 후 그들이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면 폭력관계에서 탈피하여 이혼이나 별거를 하느냐를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분석하였다.

IV. 생애과정 I : 유년기부터 결혼까지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유년기부터 결혼까지의 생애과정을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폭력성과 폭력 상황에서의 대처행동, 원가족과의 가족관계가 그들의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해자인 남편의 성장과정을 통해 폭력의 세대전수 현상과 가정환경이 가해자에게 미쳤을 정서적인 영향 등을 가계도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연구대상자들과의 생애과정에 있어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에서 나타나는 가부장적 사고와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1. 연구대상자들의 원가족 특성

먼저 연구대상자의 폭력이 세대로 전수된다는 것과 남편의 폭력의 원인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연관지어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자들의 원가족에 대해 경제적 상황, 폭력, 외도, 도박, 알콜경험 유무와 정신질환 유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나타나는 것처럼 10사례 중에서 연구대상자의 6사례 정도가 그들의 경제적 상황이 '보통이었다'라고 답 한데 비해 가해자인 남편의 경우 8사례가 '못살았다'라고 답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현재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은 폭력과도 깊은 연관이 있으며 특히, IMF라는 특수한 시대적 상황까지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사례3의 경우는 어려운 집안 형편이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사례9의 경우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어렸을 때부터 많은 고생을 해왔다. 물론 사례9의 경우는 10사례 중에서 가장 연령이 높았으며 이는 시대적 상황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가족의 경제적인 상황은 여성 피해자들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더라도 친정에 알리기가 어려운 하나의 이유가 되며, 이는 또한 이들이 폭력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

다음으로 폭력의 세대 전수를 잘 설명해주는 원가족의 폭력 유무를 살펴보면 전체 10사례 중에서 피해자인 여성이 폭력가정에서 자란 경우는 사례10의 한 사례밖에 없었으나 가해자인 남편의 경우는 5사례나 되었다. 이는 서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확대를 하는 남편들이 폭력가정에서 성장했을 확률이 50-70% 이상이나 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보겠다(허남순,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공미혜, 1993).

원가족의 특성 중에서 외도나 도박, 알콜문제, 정신질환문제를 가진 사람의 유무에서는 모두 피해자인 여성들보다는 가해자인 남편들의 원가족이나 본인이 경험을 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사례1의 경우는 남편이 심각한 알콜문제를 갖고 있으며, 가족원의 상당수가 정신질환을 문제로 전부인이나 전남편과 헤어졌고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번 이상의 이혼경험을 가진 특별한 경우이다. 이러한 원가족이 가진 정신질환적인 문제나 이혼경험은 가해자인 남편에게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본인의 원가족 문제를 처가에 알리고 싶지 않아 하고 이것은 부인이 친정을 자주 왕래하는 것이나 스스로도 처가에 가는 것을 피하게 되면서 폭력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사례1의 남편의 경우 항상 술을 마신 후 폭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콜문제가 폭력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례10의 경우와 비슷한데 사례10의 경우는 이미 남편이 알콜중독자로 몇 번의 병원 입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사례1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이외에도 가해자인 남편의 4사례나 외도 경험이 있으며, 피해자인 여성의 외도 경험도 2사례 있었다.

가계도를 통한 이들 가족의 가족관계 분석결과에서는 피해여성과 남편 모두 그들의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여성피해자들과 원가족의 정서적인 관계는 이들이 폭력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전체 10사례 중에서 친정부모님이나 형제들과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는 2사례 즉, 사례1과 사례7 밖에 없었고 나머지 8사례는 모두 소원하거나 단절된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정서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폭력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무르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유무와 함께 원가족과의 정서적 유대가 여성피해자들에게 중요한 폭력에서의 탈피를 위한 자원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2. 결혼으로 이르게 되는 과정

연구대상자들이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표 3>과 같이 간단하게 결혼과 관련된 일반적인 특징을 먼저 제시하였다.

먼저 <표 3>을 보면 결혼의 형태가 초혼인 경우가 6사례이며, 재혼(사례9는 삼혼)인 경우도 4사례나 된다. 재혼을 한 경우는 모두 전남편과 이혼을 한 경우이며(사례9의 경우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의 사망임) 재혼일 경우에는 혼인시작형태가 단순한 동거관계로 시작하는 경우가 초혼인 경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표 3> 연구대상자의 결혼과 관련된 특징

사례	혼인연령		혼인형태		혼인방법	혼인기간 [㉠]	연애기간	혼인시작형태	결혼식유무	혼전성관계유무
	본인	남편	본인	남편						
1	31	35	재혼	재혼	중매	3년 4개월	4개월	결혼 [㉡]	했음	없었음
2	21	26	초혼	초혼	연애	6년 2개월	1개월	동거 [㉢]	했음 (4년4개월후)	있었음
3	25	30	초혼	초혼	중매	11년11개월	6개월 [㉣]	결혼	했음	없었음
4	20	21	초혼	초혼	연애	16년 3개월	1개월	동거	안했음	있었음
5	38	43	재혼	재혼	연애	2년	3개월	동거	안했음	있었음
6	23	30	초혼	초혼	중매	16년 8개월	15일	결혼	했음	없었음
7	34	39	재혼	재혼	연애	4년 2개월	2년	동거	안했음	있었음
8	21	26	초혼	초혼	연애	19년4개월	1개월	결혼	했음	있었음 [㉤]
9	47	49	삼혼	재혼	연애	약 10년	1년	동거	안했음	있었음
10	25	27	초혼	초혼	연애	13년 9개월	2년	결혼	했음	있었음 [㉤]

① 혼인기간은 [평균의 집] 입소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③ 동거 :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동거를 먼저 시작한 경우를 말함.

⑤ 성폭력에 의한 성관계

② 결혼 : 결혼식후 동거생활을 시작한 경우를 말함.

④ 연애기간이 6개월이긴 하나 실제로 만난 횟수는 여섯 차례 정도 됨.

나타났다.

혼인방법은 중매결혼이 3사례이며, 나머지는 모두 연애결혼이다. 혼인기간은 2년부터 19년 4개월까지로 다양하며, 평균연애기간은 중매혼의 경우는 대략 3개월 정도이며 연애혼의 경우는 대략 10개월 정도이다. 이를 볼 때 중매혼이 연애혼보다는 교제기간이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혼인시작형태는 중매혼의 경우 모두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했으며, 연애혼의 경우에는 사례10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바로 동거로 결혼생활을 시작했다. 결혼식을 올린 경우는 전체사례 중 6사례이고 올리지 않은 경우도 4사례나 된다. 특히, 재혼의 경우 결혼식을 따로 치르지 않은 경우가 3사례를 차지하고 있다.

혼전성관계의 유무는 3사례를 제외한 7사례는 모두 혼전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8과 사례10은 혼전성관계가 결혼을 하게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학대받는 여성들의 결혼형태 중에서 혼전임신, 혼전강간, 혼전동거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결혼형태가 과반수를 넘었다는 연구결과(김광일, 1988; 허남순, 1993)와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여진다.

이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매를 통한 만남이 바로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례3과 사례6이 포함된다. 사례3의 경우 나이가 들어 선을 보고 6개월 정도 남편과 교제한 후 바로 결혼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더구나 6개월 정도의 기간 중에서 실제로 데이트를 한 경험은 5-6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전에 남편에 대해

서는 잘 몰랐던 것이다. 사례6의 경우는 사례3보다 더 짧은 만남이었는데 선 본지 15일만에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다.

"나이가 차 집에서 선을 보게 해서 선을 보고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너무 바보같이 살았던 것 같아요. 남자도 사귀어보고 했으면 남자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너무나 순진했기 때문에 남편과 가끔 만나면서도 남편의 성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 집안 형편도 어려운데 남편이 아무 것도 필요 없다며 결혼하자고 했고 그 말을 하는 남편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 싶었어요."(사례3)

"선보고 서너 번 만났나 하여튼 한 보름만에 결혼했어요. 그 때는 남편이 ○○방직에 다니고 있었는데 직장도 괜찮은 편이었고 집이 가난한 것이 조금 걸리기는 했지만 우리 집이 조금 넉넉했으니까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중략) 그때 조금 더 알아보고 결혼을 했더라면 아마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사례6)

두 번째는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 곧바로 동거에 들어간 경우이다. 이 유형에는 사례2와 사례4가 해당된다. 사례2는 남편과는 21살 때 강연희씨가 친구들과 함께 해운대에 놀러를 갔다가 만났다. 당시 남편은 ○○중공업에서 용접공으로 일하고 있었고 1개월 정도 사귀다가 곧바로 동거생활로 들어갔다. 후에 아이를 임신해 혼인신고를 하고 두 아이를 낳은 후 결혼식을 올렸다. 사례4의 경우 김미정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충북 보은에 있는 친구 옷가게 일을 도와주다 남편을 만났다. 당시에 남편은 택시운전사였고 알게 된지 1달도 채 되지 않아 아내 남

편의 집으로 들어가 동거생활을 시작했다. 그때 김미정씨는 20세를 갓 넘긴 나이였다. 결혼을 하고도 친정에는 알리지 않았다. 아이를 두 명이나 낳을 때까지도 친정에서는 몰랐는데 언니가 눈치를 채고 결혼한지 3년만에 보은으로 찾아와서 친정에서도 알게 되었다.

상담자 : "20살 때 동거를 시작했지요? 그때 남편과 결혼한다고 생각했어요?"

내담자 : "처음엔 아니었죠. 그때, 아무 것도 몰랐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해서 얼마 안됐을 때니까 뭘 알았겠어요. 만약 알았다면 애초에 시작을 안했죠. 나쁜 건지 뻔히 알면서..."(사례4)

세 번째는 결혼전의 성관계로 인해 남편의 폭력성을 알면서도 할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경우로, 사례8과 사례10이 해당된다. 결혼전에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두 사례 외에도 5사례가 더 있으나 이들은 결혼을 하게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결혼전 성관계가 아닌데 그 차이점이 있다. 사례8의 경우는 직접적인 폭력이 결혼전에 있었으며, 사례10의 경우는 직접적인 폭력은 아니라도 어느 정도 폭력적인 성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순결을 폭력적인 성격보다 더 중요시 여겨 결혼하게 된 경우이다. 이들의 경우는 결혼 후에 폭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거의 확신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데이팅 관계에서 20-25%가 폭력 경험율이 있다는 것(김예성·김득성, 1999)과 비교하면 비슷한 연구결과이며, 그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에서 강한 가부장적인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즉, 남성에 의한 강제적인 성관계나 순결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수치심으로 결혼을 하게 된 경우이다.

"그때 전 이미 남편하고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처음에 남편이 거의 성폭력으로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때 충격이 상당했어요. 제 몸을 씻고 씻고 또 씻고... 그런데 나중에는 포기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돈이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이었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나중에는 부모님도 포기를 하더군요."(사례10)

네 번째는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한 재혼인데 사례1, 사례5, 사례7, 사례9가 해당된다. 이들 사례들은 모두 첫 번째 결혼에서 실패했으나 그들의 첫 번째 결혼의 실패가 전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경우는 아무도 없었다. 재혼의 경우에는 사례1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거생활을 먼저 시작한 경우이고 혼전에 성관계도 가진 경우이다. 또한 사례5와 사례9의 경우는 재혼이면서도 본격적인 동거전에 폭력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폭력이 무서워 결혼을 해준 경우이다.

"제가 ○○동에 있는 막국수집에서 일할 때 만났어요. 처음에는 전 남편을 몰랐어요. 그냥 자주 오는 손님인가 보다 했는데 97년 7월 22일 남편이 저에게 전화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주 만났죠. 전 그때 집 근처에서 혼자 밥을 얻어두고 살고 있었고 남편은 지금 사는 집에서 혼자 살았어요. 서로서로 혼자인 것 같고 하니 정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 부부관계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합치기 전에 남편에게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망도 참 많이 다녔어요. 그래도 제가 일은 해야 하니 어찌겠어요. 결국은 남편이 살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사례5)

V. 생애과정 II: 결혼부터 입소까지

본 장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결혼후부터 입소하기까지의 생애과정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의 폭력 경험과 이를 중심으로 그들이 계속적인 폭력 속에서도 어떻게 결혼생활을 지속해 올 수 있었는지를 체계이론에서 말하는 아내학대의 단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대상자들의 폭력 경험

연구대상자들의 폭력 경험과 관련된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연구대상자 중에서 3사례는 결혼전에 이미 남편으로부터 구타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사례5, 사례8, 사례9가 해당되는데 사례5의 경우는 남편이 본인과 사귀기 전에 사귀던 여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 계기가 되어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이며, 사례8의 경우에는 혼전성관계에 의한 임신을 남편에게 숨기고 유산을 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으며, 사례9의 경우는 특별한 이유 없이 맞은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결혼전에 구타를 당하고 남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나 남편의 협박이 두려워 할 수 없이 결혼하여 살게 된 경우이다. 그 외에는 결혼후 10일 후부터 4년 사이에 폭력이 일어난 경우인데 사례2와 사례10을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후 6개월 이내에 첫폭력이 일어났다. 이는 많은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들의 폭력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CTS2²⁾를 이용했는데 아내학대점수는 최저 46점에서 최고 111점까지였으며, 신체적 폭력은 최저 21점에서 최고 47점, 심리적 폭력은 최저 20점에서 최고 36점, 성적 폭력은 최저 0점에서 최고 40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점수는 아내학대점수가 76점, 신체적 폭력점수가 34점, 심리적 폭력점수가 24점, 성적 폭력점수가 18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가족을 대상으로 CTS2를 실시한 연구결과(손정

2) 본 연구에 사용된 CTS2(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는 Straus 등(1996)이 사용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표 4> 연구대상자의 폭력경험과 관련된 특성

사례	첫구타시기	CTS2 점수*	평균폭력횟수	자녀학대유무	주요구타이유	병원치료경험	가출경험	폭력 후 남편의 태도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주요인내이유
1	2개월	93/43 27/23	주1~2회	학대함	•술마시먼구타 •의치중 •직장내스트레스	2회 (발가락, 갈비뼈부러짐)	1회	•사과, 용서받 •각서쓰	진정시키려함→피 함→가출	•재혼에 대한 책임감 •자존심
2	4년	111/47 24/40	초:주1회 후:한달1~2회	학대함	•돈빌려오지 않는다고 •울산에 내려온다고	1회 (고막터짐)	무	•아무런 반응 없음	맞음	•이혼에 대한 두려움
3	41일	99/38 36/25	초:한달1~2회 후:한달2~3회	학대 안함	•특별한 이유없음 •의치중 •전세권미설정문제	1회 (고막터짐)	무	•사과, 용서받	맞음→말로대응→ 가출→경찰신고	•자녀때문에
4	10일	73/44 22/7	주1회	학대 안함	•특별한 이유없음 •가출후 가출했다고	2회	4 ~5회	•사과, 용서받	말로대응→가출→ 이혼	•자녀때문에
5	결혼전 (연애후2개월)	66/30 13/23	주1회	학대함	•남편의 여자문제	3회 (고막터짐, 자상)	많음	•아무런 반응 없음	말로대응→가출→ 경찰신고	•재혼에 대한 책임감
6	6개월	68/28 33/7	한달1~2회	학대함	•사소한 일 •돈문제 •외도경험	2회 (자상)	2회	•아무런 반응 없음	말로대응→가출→ 이혼	•자녀때문에
7	6개월	60/34 20/6	한달1~2회	학대함	•사소한 일	10여회 (자상,갈비뼈,늑 막골부러짐)	2회	•사과, 용서받	참음→피함→가출 →경찰신고	•재혼에 대한 책임감 •남편의 용서
8	결혼전 (연애후1개월)	46/21 25/0	초:1년1~2회 후:한달1회	학대함	•특별한 이유없음 •의치중	1회	10여 회	•사과, 용서받	맞음→가출	•이혼에 대한 두려움
9	결혼전 (연애1년)	71/22 24/25	두달1회	학대함	•돈문제 •사소한일	4회 (7,5,2주진단, 갈비뼈부러짐)	많음	•아무런 반응 없음	말로대응→가출	•이혼에 대한 두려움
10	9개월	76/34 24/18	초:1년3~4회 후:한달1~2회	학대 안함	•병원에 자주오지 않았다고 •가출해서 어디에서 무엇했냐고	2회 (갈비뼈부러짐, 유산)	3회	•사과, 용서받 •각서쓰	진정에알림→말로 대응→가출→경찰 신고	•자녀때문에

* 아내학대점수/신체적폭력점수/심리적폭력점수/성적폭력점수

영, 1998)에서 아내학대점수의 평균이 16.19이고 신체적 폭력점수가 5.82, 심리적 폭력점수가 8.26, 성적폭력점수가 2.11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점수임을 알 수 있다.

사례7의 경우 폭력정도가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CTS2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CTS2 질문이 1년 이내에 경험한 폭력경험을 중심으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CTS2 점수가 가장 높은 사례2의 경우는 다른 사례들에 비해 폭력이 시작된 시기가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폭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자들의 평균 폭력횟수는 가장 심한 경우 주1회 정도부터 1년에 1~2회 정도로 볼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폭력의 강도와 빈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은 평균 한달에 1~2회 이상씩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구타이유는 특별한 이유없이 사소한 것에도 먼저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의치중이나 외도문제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폭력자의 대부분은 특정한 이유가 없이 그때그때 이유를 만들어가며 부인을 구타한다. 사례2와 사례5, 사례10의 경우는 그나마 구타의 이유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례2의 경우는 초기에는 돈을 빌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타하다가 후기에는 울산에 내려온다는 이유로 구타한 경우이며, 사례5의 경우는 남편의 결혼전 여자문제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말싸움이 일어나고 남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경우이며, 사례10의 경우는 초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가 구타가 후기로 접어들면서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병원에 자주 오지 않았다는 이유와 가출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했냐는 이유로 구타를 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들이 지각하는 모든 구타이유들은 사실 구타 이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며, 피해 여성이나 남성 모두 강한 가부장적 사고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평소에 부부관계에서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5의 경우처럼 평소에는 쟁해있다가 남편이 술이 한잔 들어가면 그것을 빌미로 평소에 갖고 있던 것까지 드러내가면서 구타를 한다거나 사례2의 경우처럼 평소에 남편과 거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부부사이의 대화의 기술이나 대화의 부족이 폭력과 상당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대상자는 모두 남편의 구타로부터 1회 이상의 병원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들이 병원을 찾을 때는 주로 집에서 치료가 불가능 할만큼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경우이며, 단순한 타박상이나 찢어지는 상처 등으로는 병원을 찾지 않는다. 이들이

병원을 찾지 않는 이유는 주로 수치심 때문이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사례 중에서 남편으로부터 맞아 고막이 터진 경우는 사례2, 사례3, 사례5가 해당하며 갈비뼈나 발가락뼈 등 골절상을 입은 경우는 사례1, 사례7, 사례9, 사례10에 해당된다. 이렇게 뼈가 부러지는 상처는 상당히 많은 구타를 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며 구타에 흉기가 사용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렇게 구타를 당하고 병원을 찾더라도 그들이 상해진단서를 끊어두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이는 상해진단서를 떼기 위해서는 의료보험비의 적용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진료보다 치료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이다.

가출경험유무는 사례2와 사례3의 경우는 없으며, 사례5와 사례8, 사례9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주로 가출을 해서 가는 곳은 친정이나 친구집이며, 때로는 방을 얻어 나가는 경우도 있다. 가출은 주로 폭력직후에 많이 일어나며 가출기간은 하루에서부터 수개월에 이르기도 한다. 그들이 가출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주된 이유는 자녀 때문이거나 남편의 용서로 인한 경우가 많다. 가출을 하고 나면 폭력이 약간의 소강상태를 보이기 는 하나 이것은 다시 재발하며 계속해서 이러한 폭력주기를 형성하게 된다.

대부분의 남편의 경우는 그들이 아내를 구타한 후에 잘못했다며 용서를 빌지만 사례2와 사례5, 사례6, 사례9의 경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구타 후에 평소와 다름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이는 부인으로 하여금 '내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폭력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대부분 남편에게 큰 저항을 못한다. 아니 처음에는 말로라도 저항을 해보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후에는 어쨌든 폭력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을 치거나 가출을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본 시설로 입소하게 된다.

2. 결혼생활지속 이유

연구대상자들이 그 동안 남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재혼에 대한 책임감이다. 여기에는 사례1, 사례5, 사례7이 해당된다. 사례1의 경우에는 첫 번째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한 경우이고 사례5의 경우는 첫 번째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 본인이 가출을 했고 후에 이혼을 한 경우이다. 사례7의 경우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남편이 자살을 하고 두 번째 결혼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스스로 집을 나온 경우이며, 후에 이혼이 된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다른 이유에서 전남편과 이혼을 했지만 두 번째 결혼마저 이혼할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남편의 구타속에서도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올 수 있었던 것이다.

"중략.....근데 그래도 막상 이혼은 못하겠더라고요. 제 자존심

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부모나 친구들 보기도 그렇거든요.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이혼한다는 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어요."(사례1)

"중략...처음에 왜 헤어지려고 했잖아요. 그때 잘 안되고는 포기했어요. 그리고 전남편과 아이를 생각하면 어떻게든 살아야겠다 싶더라고요. "바람나서 나간 여자가 그렇지 뭐." 하는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힘들게 한 결혼이니 만큼 잘 살아야겠다는 싶었어요. 남편이 별면 또 금방 잊어버리게 되거든요."(사례7)

두 번째는 자녀들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로 사례3, 사례4, 사례6, 사례10이 해당한다. 사례3의 경우는 아이들이 어려서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클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어느 날 아이가 이미 많이 컸다는 것을 발견하고 진정으로 아이를 위하는 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경우이며, 사례4의 경우는 자녀들에게 어머니가 이혼했다라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사례6의 경우는 딸만 셋이었기 때문에 엄마가 없을 경우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아이들이 클 때를 기다린 경우이며, 사례10의 경우 역시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기를 기다린 경우이다. 이들은 모두 자녀들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결혼생활을 지속하려고 한 경우이다.

"이혼하려고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도 애들 때문에 맘대로 되나오. 한창 사춘기이고 안그래도 가출을 많이 해서 괴롭히는데 제가 나가면 애들이 더 빛나갈 것 같았어요. 어쨌든 조금만 더 큰 후에 이혼을 하든 집을 나오든 해야겠다 싶었어요. 더구나 딸이잖아요. 세상도 험한데 제가 없으면 더 안 되겠더라고요.... 중략"(사례6)

"중략...애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랐지만 엄마가 집을 나갔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살았을지 모르잖아요. 참고사는 엄마가 밧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우리 안 버리고 살아주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도 잘못했다고 했어요."(사례10)

세 번째로는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기에는 사례2, 사례8, 사례9가 해당된다. 사례2의 경우는 현재의 처지를 그렇게 비판하지도 그렇다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도 없다. 아이가 둘이나 그것도 어린 나이이고 혼자서 이들을 먹여 살리기에 너무나 역부족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이다. 사례8의 경우는 이혼녀에 대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해서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이며, 사례9의 경우에는 늙은 나이와 역시 주위의 시선 등으로 이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우이다.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게 하면 뭐해요. 혼자 먹고 살길도

없는데... 혼자 살 자신도 없구요. 애들도 그렇고..."(사례2)

"그냥 이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잘 모르겠지만 전 이상하게 이혼은 하고 싶지가 않대요. 그냥 떨어져 살면 살았지... 이혼하고 이려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 아직도 주위에서 이혼한 여자라고 혼자 산다면 시선이 그렇잖아요. 그게 싫대요."(사례8)

VI. 생애과정Ⅲ : 입소후의 방향

계속되는 구타속에서 여성들이 집을 나올 때는 그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든 아니면 어떤 계기에 의한 순간적인 것이든 그들은 폭력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집을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막상 집을 나왔을 때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친정이나 친구집 또는 본 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밖에는 없다. 그리고 이런 것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경우는 대부분 여관 같은 곳에서 며칠을 머무르면서 다른 머물 곳을 알아보기도 한다.

또한 많은 가정폭력피해자들은 그들이 집을 나올 때 한번의 폭력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몇 번에 걸친 폭력이 있고 나서 가출을 하고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고 가출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친정이나 친구집 등은 이미 여러 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치

심이나 미안함 또는 남편이 쉽게 찾아낼 것을 걱정하여 보다 안전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본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이미 이러한 시설이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입소직전의 사건을 계기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때로는 이미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입소 후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첫째는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로 사례1, 사례7, 사례8이 포함된다. 사례1의 경우는 남편과의 장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입소를 결심했고 초기에는 이혼을 생각했다가 계속되는 남편의 용서를 받아들여 남편으로부터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고 폭력도 사용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공중 받아, 입소한지 46일만에 가정으로 돌아갔다. 귀가 후 1달여가 지났지만 남편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으며, 현재의 생활에 아주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사례7의 경우는 남편의 마지막폭력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고 남편을 고소한 후 입소한 경우로 입소기간 동안 남편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입소 후 재판이혼까지 신청을 한 상태에서 남편이 구치소를 나오면서 용서를 빌자 이를 받아들여 다시는 구타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중을 받아 약 3개월만에 가정으로 돌아갔다. 퇴소 후 남편은 가정보호사건의

<표 5> 연구대상자의 입소후의 방향

사례	입 소 의 결정적 계기	입 소 기간	퇴소후 기간	퇴소시 조치결과	퇴소이후 방향	추 후 결 과
1	· 미래에 대한 생각 위해	46일	46일	· 가해자상담→공중받음	귀가	· 재폭력 없음 · 술끊음(단주모임다님) · 아주 잘해줌
2	· 경제적 어려움	19일	4일	· 없음	취업	· 연락두절
3	· 마지막 폭력 · 이혼	3개월	3개월 23일	· 재판이혼소송진행중	취업 독립	· 신체적 폭력 없음 · 정서적 폭력 있음 · 다시 이혼 고려중
4	·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24일	입소중	· 직장다님	입소중	· 가해자와 연락 없음
5	· 마지막폭력 · 경찰신고 · 이혼	34일	입소중	· 직장다님	입소중	· 이혼하기로 결심
6	· 마지막폭력 · 이혼	3개월	2개월 5일	· 재판이혼소송진행중	취업 독립	· 재판이혼에서 승소함
7	· 마지막폭력 · 경찰신고	2개월 20일	33일	· 가해자상담→공중받음 · 형사사건진행중	귀가	· 재폭력 없음 · 가정보호사건(3개월간 가해자 상담) · 약간의 정서적 폭력 있음
8	· 마지막폭력 · 별거	38일	4개월 10일	· 가해자상담→각서쓰	귀가	· 신체적 폭력 없음 · 2개월후 정서적·언어적 폭력 있었음 · 약 1달전 딸과 월세방 얻어서 독립
9	· 폭력에 대한 두려움 · 이혼	54일	입소중	· 공공근로다님 · 재판이혼소송 진행중	입소중	· 가해자와 연락 없음
10	· 마지막폭력 · 경찰신고 · 이혼	25일	입소중	· 직장다님 · 재판이혼소송중	입소중	· 가해자와 연락 없음

일종인 가해자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신체적인 폭력은 없지만 정신적 폭력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8의 경우는 처음에는 별거를 생각했으나 남편이 방을 얻어서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연시키는 바람에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소한지 40일 쯤 다시 가정으로 돌아왔다. 퇴소 후 남편의 도박과 정신적 괴롭힘으로 인해 귀가한지 3개월 여만에 딸아이와 함께 방을 얻어 독립해서 살고 있다.

사례1의 경우는 가정으로의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사례7과 사례8의 경우는 신체적인 폭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다소 긍정적이나 여전히 심리적인 폭력이 있기 때문에 좀더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잘 지내요. 요즘은 남편이 더 잘해줘요. 아침에 제가 늦게 일어나도 아무 말도 안해요. 오히려 자기가 먼저 일어나 혼자서 밥을 챙겨먹고 나가요. 반찬이 없어도 투정도 전혀 안해요. 전혀 딴사람 같아요. 우리 남편은 할 땐 아주 잘해요.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노력해요. 저도 잘 해야죠."(사례1)

"중략...○○(딸)도 그렇고 혼자서 산다는 것도 그래요. 아픈 남편을 사랑하는거 같아요. 자기도 이번에 많이 느꼈겠죠. 이렇게 한 건 처음이잖아요. 이제 법이 얼마나 무서운건지도 알거구요. 저도 이번에 많이 알았구요. 한번만 더 용서해줄래요. 그래도 안되면 그때 정말 이혼할거예요."(사례7)

두 번째는 남편과의 이혼을 전제로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 취직을 하거나 입소기간이 만기되어 월세방을 얻어 퇴소를 한 경우이다. 여기에는 사례2, 사례3, 사례6이 해당된다. 사례2는 입소 당시 남편이 강간치상으로 복역중에 있었으며, 어린 아이 두명과 함께 생활고가 힘들어 입소한 경우로 입소한지 20여 일만에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 취직이 되어 퇴소를 했다. 아이들은 입소자가 스스로 고아원에 데려다 주었으며, 퇴소 후의 행방은 두절되었다. 사례3과 사례6의 경우는 모두 자녀 때문에 구타를 견뎌 오다 마지막 폭력이 일어난 시점에서 입소를 하였으며, 입소중에 취직을 했고 재판이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입소기간이 만기되어 퇴소한 경우이다. 사례3의 경우에는 퇴소 후 남편의 용서를 받아들여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이며, 가정으로 돌아간 후 남편의 심리적인 폭력이 조금씩 있는 경우이고 사례6의 경우는 혼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살다가 얼마전 재판이혼에서 승소한 경우이다. 사례6은 전혀 남편과 연락을 끊고 있다.

사례3의 경우처럼 퇴소당시에는 독립을 해서 나가더라도 추후에 남편과 연락이 되면 다시 가정으로의 복귀를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수 많다. 이들은 입소중에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남편의 계속적인 용서, 이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실제로 혼자서 생활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등을 통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확률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제 일해서 열심히 돈벌거예요. 그래야지 애들하고 빨리 같이 살수가 있죠. 이제 모두 다 잊고 밀만할래요. 한 4.5년만 으면 작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때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울거예요."(사례3)

"정말 그 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이제 정말 두 다리 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야 완전히 벗어난 것 같아요. 정말 기쁘요."(사례6)

세 번째는 여전히 시설에 입소중인 경우로 사례4, 사례5, 사례9, 사례10이 해당된다. 이들은 모두 남편과의 이혼을 전제로 입소기간 만기 후 홀로서기를 위해 열심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돈을 모으고 있는 상태이다. 사례4의 경우는 이미 남편과 이혼이 된 상태에서 입소한 경우이나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구타를 피해 나온 경우이며, 사례5와 사례10의 경우는 마지막 폭력이 발생했을 때 이혼을 결심하고 입소한 경우이며, 사례9의 경우는 마지막 폭력이 계기가 되긴 했지만 직접적인 계기는 앞으로의 폭력의 재발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이제 일자리를 알아볼래요. 저는 그 동안 주방 말고 홀일을 많이 봐서 홀일을 할래요. 일도 잘할 자신있구요. 그 대신 시내 말고 좀 외곽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혹시나 남편이 찾아올까봐요... 워낙 잘 찾아다니니까 겁도 조금 나구요. 그래도 이제 정말 혼자서 잘 살거예요.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벌어야죠. 지금부터 벌면 충분히 잘 살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 동안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사례5)

"가사원에 등록했어요. 아직 몸이 많이 좋지 않아서 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좋을 것 같았어요. 어디에 월급제로 가면 제가 원할 때 놀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몇 달 하면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거 보가면서 그때 제대로 된 일자리 찾죠 뭐."(사례10)

VII. 결 론

본 연구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중이거나 다년간 가정폭력피해자 특히, 남편으로부터 심한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 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의 성장과정과 결혼, 결혼생활의 지속과정과 이유, 그리고 시설 입소후의 방향 등을 생애과정적 관점을 통해 그들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성장과정은 어떠한가, 가족관계, 결혼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자들의 성장과정은 아내학대 피해자인 여성들의 경우 대부분 큰 차이가 없었으나 가해자의 경우는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으며 10사례 중 5사례가 폭력가정에서 자랐고

2사례는 이미 그들의 자녀들도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관계는 피해여성이나 가해자 대부분이 원가족과 정서적으로 소원한 관계를 많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는 피해여성들이 폭력상황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보여진다.

연구대상자들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은 중매를 통한 결혼과 짧은 연애기간 후 곧바로 이어진 동거생활의 경우가 각각 2사례였으며, 혼전성관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결혼한 경우가 2사례, 재혼인 경우가 4사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3사례는 이미 결혼전에 폭력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여성 피해자들이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이유는 무엇이며, 지속과정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자들이 결혼생활을 지속해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재혼에 대한 책임감이 3사례, 자녀 때문인가 가장 많은 4사례 그리고 이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 3사례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결혼지속과정 중에서 폭력정도를 살펴보면 2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결혼후 6개월 이내 첫폭력이 발생했고 결혼기간 지속내내 폭력이 심할 경우 일주일에 1-2차례 이상씩, 평균 한 달에 1-2차례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0을 제외하고 이들은 모두 첫폭력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후의 폭력 대응방법으로는 2사례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출의 경험이 있다. 특히, 이들의 가출은 처음에는 힘들게 이루어지지만 일단 한번 가출하고 나면 여러 번에 걸쳐 되풀이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출후 남편의 폭력이 일시적으로 없거나 다소 줄어드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가출을 했다는 이유로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었다.

셋째,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입소후의 방향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자 10사례 중에서 퇴소자는 6사례이며 현재 시설에 입소중인 자는 4사례이다. 퇴소자 중에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는 3사례로 모두 남편으로부터 공중이나 각서와 같이 다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가정으로 돌아갔다. 이들이 가정으로 되돌아간 이유는 대부분 결혼생활을 지속해 온 이유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소자 6사례 중 2사례는 남편과의 재판이혼 소송 중에 입소기간이 만료되어 월세방을 얻어서 퇴소한 경우이며, 한 사례는 숙식이 제공되는 곳에 취직이 되어 퇴소하였다. 나머지 4사례는 현재 시설에 입소중인데 모두 남편과 이혼이 되었거나 재판이혼소송 중에 있는 경우이다.

위의 결과들을 토대로 결론을 도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폭력이 악순환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는 폭력을 근절시킬 만한 어떠한 대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폭력이 근절되기 보다는 하나의 '학습의 장' 역할을 하게 되고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이들은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형성하게 되고 그들이 보고 배운 그대로 다시 폭력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결혼에 이르는 과정은 소위 말해 비정상적인 결혼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은 빈곤과 상당부분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연구결과 가해자 10사례 중에서 4사례가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현재에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IMF라는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이들의 경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빈곤이 직접적인 가정폭력의 원인은 될 수 없다. 하지만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가족스트레스 중에서도 경제적 스트레스가 최우선이며, 이러한 스트레스가 위기로 가서 가족구성원간의 갈등과 폭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에서도 뒷받침해주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훈련이나 경제적 안정은 폭력의 예방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셋째,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은 단순하게 피해를 당하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그들의 자녀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사례중 자녀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학대를 하는 경우가 7사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감안하여 이들 자녀들에 대한 상담 및 격리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원가족과의 정서적 관계가 폭력을 근절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 친정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는 경우 그들은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가정폭력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생애과정적 관점이 상당히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처럼 상당수의 가정폭력은 단순한 한 개인의 성격결함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가족구조, 가족관계의 역동성, 경제력, 가족구성원의 친밀감 등 그 시대적 영향과 역사적 사건 등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엇보다 생애과정적 관점은 가정폭력이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통해 전수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접근방법이라 하겠다.

□ 접수일 : 2001년 1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6월 13일

【참 고 문 헌】

- 공미혜(1993).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여성문제개발토론회 자료집, 이형자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6-11.
- 김광일(1988).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서울:탐구당.
- 김영아·이죽내(1995). 아내구타 남편의 정신사회적 특성. 신경정신의학 제34권 제5호.
- 김예성·김득성(1999). 데이팅관계에서 폭력집단의 특성과 신체

- 적 폭력 발생의 맥락.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4권 2호.
- 김정옥(1985). 도시 부부의 갈등 해결표출방법에 관한 연구-폭력 행위를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정영(1998).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도시 중산층 부부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분·김유숙 역(1992). 가족분석가제도. 서울:홍익재.
- 전형미(1989).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쾌남(1998). 독거노인가구의 형성과정에 관한 생애과정적 사례 연구-울산시 거주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개발원(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여성개발원.
- 한국여성의전화(1998). 상담통계집. 서울:여성의전화.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연구 -서울시의 남편의 아내폭력현황을 중심으로-. 서울:형사정책연구원.
- 허남순(1993).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 및 치료기법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편, 비교사회복지(2)-복지국가의 비교. 서울:을유문화사, 275-320.
- Gelles, R. J.(1980). *Violence in the family : A review of research in the seven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4), 873-885.
- Gelles, R. J., & Straus, M. A.(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 I. Ru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1), New York, NY; The Free Press.
- Straus, M. A.(1973). *A general systems theory approach to a theory of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Social Science Information, 12(June), 105-125.